




제106평택 3·1독립만세운동 주년 기념식



2025년 3월 9일(일요일) 오전 10시

평택3·1운동기념광장(평택호관광단지 내)

주최/주관  사단법인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후원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문화원 Btv 기념방송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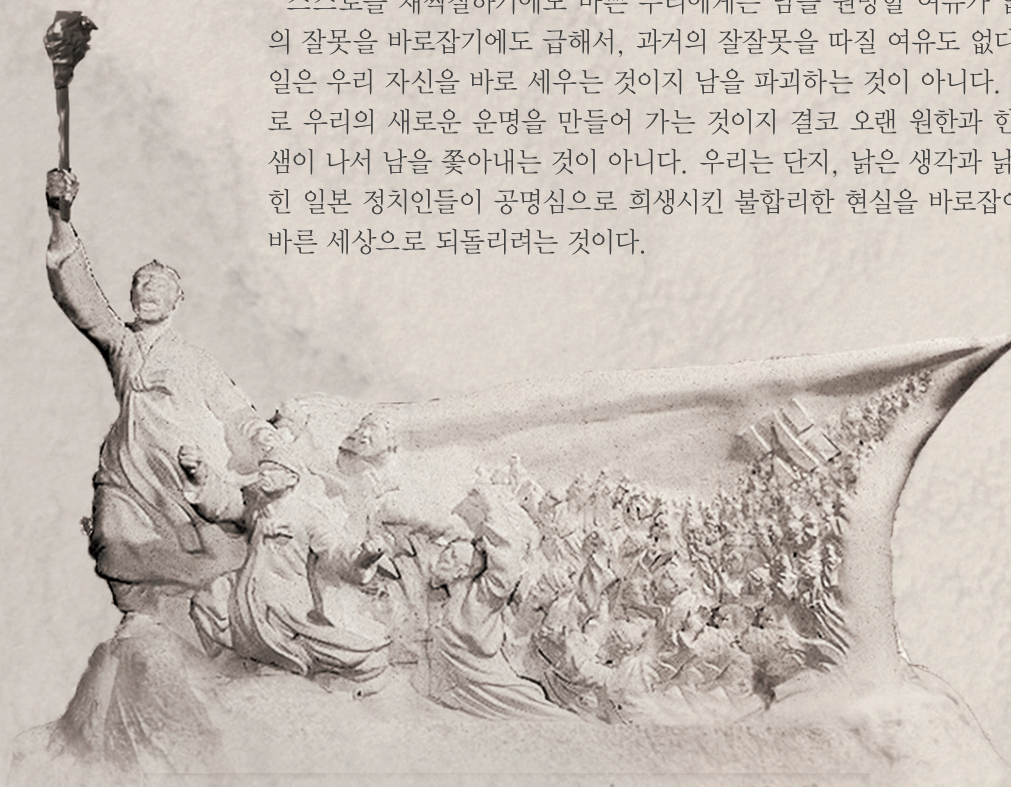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어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넓은 생각과 넓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평택 3·1 운동 100주년 기념 '그날의 함성'

제106평택 3·1독립만세운동 주년 기념식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돌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기념식 식순

- 식전행사
 - 기념품(버튼) 만들기 체험
 - 행사 기록용 태극기 서명
 - 홍보 패널 전시
 - 한우리풍물패 길놀이 농악
 -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축하공연
 - 내빈 소개
 - 개회
 - 국민의례 / 육군 제51사단 기수단 태극기 게양
 - 독립선언서 낭독 / 오중근 평택문화원장
 - 헌시 낭독 / 임봄 문학박사·시인
 - 3·1운동 뮤지컬 공연 / 평택청소년합창단
 - 평택3·1운동 약사 보고 / 이용구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재무부장
 - 기념사 / 정수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
 - 축 사 / 주요 내빈
 - 유족 대표 인사 / 최원대 유족대표
 - 삼일절 노래 제창
 - 만세삼창 / 이익영 광복회 평택지회장
 - 평택3·1독립만세운동 행진 재연
 - 폐회
 - 기념사진 촬영
-
- 사회 : 신두만 BTV 기념방송 MC
 - 기념식 기획·총감독 :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

특별 출연진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평택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24년 창단됐다. 국가무형유산 '시나위'의 유일한 예능 보유자였던 평택 출신 악성(樂聖) 지영희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평택농악', 경기도무형유산 '평택민요' 등 평택 음악의 역사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평택의 소리를 국악관현악으로 승화시켜 아시아의 소리, 세계의 소리로 만들어 간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평택 문화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평택시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연주곡 / '남도 아리랑' - 작곡 백대웅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은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이다.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로, 수많은 변주와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남도아리랑은 그중에서도 남도 지방의 색깔을 담아낸 곡으로,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백대웅 작곡가는 이 곡을 통해 남도 지방의 정서를 음악에 담아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 민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듣는 이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출연진

지휘 김재영, 조다은	거문고 홍모운, 윤 별
피리 이영훈, 천성대, 김대환, 김어진	소아쟁 한 림
대금 김상봉, 김희진, 윤진우	대아쟁 최정인, 홍미연
소금 정지훈	콘트라베이스 최규원
해금 이강산, 권성은, 김소영, 최정윤, 이지현, 김원빈	타악 김민주, 한유림
가야금 한민지, 장영주, 문세미	건반 류아름
	운영 조수민
	악기 한태규

평택청소년합창단(노을중창단)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음악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 2022년 창단한 평택청소년합창단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로 여러 장르의 합창곡을 평택시민에게 선사한다. 평택의 마스코트 평택청소년합창단은 강릉세계합창대회 우정콘서트 출연, 평택시민동요부르기대회 대상 수상, 지역사회 예술단체와의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뮤지컬 / 평택, 그날의 함성

(영웅, 그날을 기억하며, 오빠 생각, 살다 보면, 단지동맹)

평택청소년합창단이 평택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을 기념해 2024년 10월부터 기획·연습해 2025년 3월 9일 특별공연으로 마련한 뮤지컬 '평택, 그날의 함성'은 당시 가장 광포했던 평택3·1만세운동을 역동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공연이다.

출연진

박가은, 권수하, 권세하, 노은지, 안서연, 마지윤, 채하이, 최지유, 노연우, 홍지원, 이가을, 백예슬, 서은솔, 장하을, 최지한, 임예림, 홍승연, 박준우, 홍민성, 김유란

지도자

총감독·합창 및 안무·연출 문미애
보컬 코치 및 출연 김유란 / 무대 감독 홍민성
스텝 심세희, 김하연



기념사

“대한에서 가장 광포(狂暴)했던 평택의 삼일운동을 이어갑시다”



1919년 3월 9일,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계두봉과 옥녀봉 일대에서 경기 남부지역 최초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평택 주민들의 주도로 일어나 경기 중남부지역 전체로 퍼져갔던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3월 1일의 만세운동이 우리 한민족 전체의 정신을 담아 시작된 것이었다면, 그로부터 8일 후인 3월 9일 평택시 현덕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경기중남부지역, 충청북부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3.1운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평택의 평택역 앞 만세운동(4월 1일)’을 거칠고 사납게 진행되었다는 뜻에서 ‘가장 광포(狂暴)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평택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었기에 평택에 사는 우리 후손들은 그런 위대한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평택시와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곳 현덕면 권관리 일대에 평택3·1운동기념광장을 조성하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등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양회에서는 ‘평택3·1운동 첫 만세운동 터’ 표석을 처음으로 세웠고, ‘평택3·1독립만세운동 봉기도’를 건립했으며, 시민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평택3·1독립운동기념비’ ‘평택독립운동선열추모비’를 차례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조상들의 뜨거운 피와 희생이 아직도 후손들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엄격하고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갈 미래에는 선조들이 겪었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평택의 자랑인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기념식 의전곡과 특별공연을 준비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고, 평택청소년합창단은 오늘 기념식을 위해 2024년 10월부터 특집 뮤지컬을 준비해 오늘 처음 선보여 기대가 큼니다.

육군 제51사단에서는 기수단이 직접 참여해 106년 전 평택 땅에서 흔들었던 태극기를 계양해 의미를 더하고, 매년 가슴을 울리는 헌시로 기념식을 더 엄숙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임봄 시인, 올해 처음으로 애국가 제창에 쓰일 평택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애국가를 더욱 의미 있게 해준 박성복 총감독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되새기는 평택의 3·1독립만세운동이 우리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

사단법인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회장 정 수 일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2012~2015)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2016~2019)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2020~2022)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2023~2024)



유공자 현황 및 3·1 봉기도



평택시 3·1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강한준 공재록 권익수 김만진 김봉희 김상완 김승선 김시연 김영상 김영오 김용성 김종국 김창섭
 김하진 남상환 류영섭 목준상 박사원 박성백 박옥동 박용업 박인중 박정식 박호성 방풍삼 서병돈
 서완득 신순우 신태호 심인택 심현섭 안구현 안옥만 안재홍 안종철 안충수 안희문 오성환 오창선
 원심창 원제승 원준식 유동환 유만수 유한중 윤교영 윤기선 윤대선 윤주식 이경춘 이규선 이규창
 이규태 이기석 이덕순 이도상 이두종 이명천 이민백 이병헌 이봉순 이사필 이상신 이승익 이약우
 이양섭 이영서 이영우 이용희 이익중 이인수 이일영 이재록 이전용 이조현 이종만 이종필 이택화
 이희성 전영록 정경순 정덕근 정수만 정우진 정우근 정세근 정호근 조창원 천선동 최광일 최구홍
 최기원 최만화 최삼준 최선유 최수일 최웅진 최종화 최항진 한성수 한영수 한준택 홍기성 황순태

평택 3·1 만세운동 봉기도



※본 지도는 1919년 3·1운동 당시 진위군 지도임.
 ※고증 :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지도 내 한자는 당시 지명이며, 지도 밖 일자 하단 표기는 현재 지명임
 ※2015년 3월 9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세움



헌 시

평택의 함성

임 봄/문학박사
(시인·문학평론가)

온 천지에 태극기 물결이 넘실거리고
고요한 들판이 핏빛 함성으로 물든 그날

나, 여기
민족의 심장에 아로새겨질 위대한 불꽃을 위해
한 줌 재로 산화한 평택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봉오산에서 봉화를 들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친
오성면 학현리 사람 공재록, 김용성, 이사필!

불길처럼 타올라 잠자는 민족을 깨운
북면 가곡리 사람 권익수!

일제의 철권에도 꺾이지 않고 수진농민조합을 조직한
고덕면 두릉리 사람 김영상! 울포리 사람 심인택!

용소리와 항구지리에서 민족의 소작쟁의를 이끈
송탄면 서정리 사람 남상환!

서슬 퍼런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도
맹렬하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북면 봉남리 사람 박성백, 유한중, 이규선, 전영록!

만주에서 독립운동 단체와 손잡고
조선의 미래를 그린 북면 야마리 사람 박인중!

평택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전파한
병남면 평택리 사람 신태호, 신대리 사람 이두중!

“이 마을은 어찌하여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민중의 함성을 이끈 오성면 안화리 사람 안육만!

날카로운 필치로 조선의 독립 정신을 일깨운
고덕면 두릉리 사람 안재홍!

육삼정 의거로 민족의 영원한 불꽃이 된
부용면 안정리 사람 원심창!

평택 장날을 기다려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했던
병남면 비전리 사람 이도상!

3.1운동을 생생하게 기록한
현덕면 권관리 사람 이병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들고
서울 만세 시위를 이끈 고덕면 울포리 사람 이익중!

군자금을 전달하며 앞장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서면 본정리 사람 이일영!

평양사범학교에서 항일을 외쳤던
송탄면 지산리 사람 이종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던
오성면 양교리 사람 이택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서적을 배포한
병남면 통복리 사람 최웅진!

동맹휴학 투쟁으로 조선의 정신을 지킨
현덕면 대안리 사람 한준택!

3.1운동, 대동단, 사회주의, 아나키즘,
전시체제 저항운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사람들은
쇠창살을 넘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만세의 외침은 어둠 속에서 더 치열해졌고
삼천리강산을 휘돌아
밤하늘의 별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나, 이제 다시, 한 명, 또 한 명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새긴다
우리들의 아들, 딸이었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람들
가장 광포했던 평택 만세운동의 역사를
피로 써 내려간
평택,
평택 사람들의 이름을!!

※ 1919년 당시 평택의 지명을 사용하여 현재의 지명과 다를 수 있음.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 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평택3·1운동
100주년 조형물

평택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장 배치도

LED전광판

태극기 게양대

행사차량

사회

연단

무대(연단, 출연자 공연)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음향 및
중계석

객석

탈의실
(여)

탈의실
(남)

탈의실
(청소년)

3·1운동
패널 전시

진행본부
(태극기 배부, 태극기 서명, 체험 등)

만세행진
출발지점



안중농업협동조합

“

변화하는 농협
함께하는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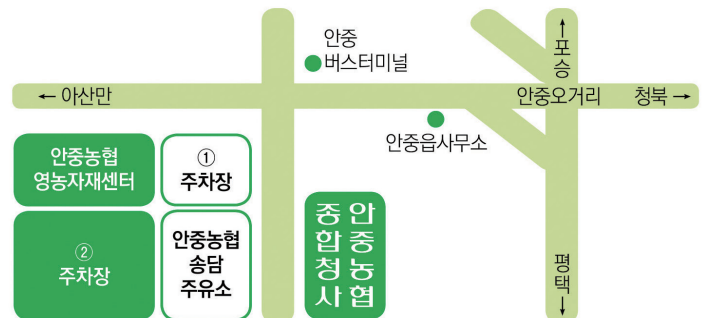


안중농협 본점 하나로마트 안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영업시간 하절기(4월~9월) 09:00~21:00
동절기(10월~3월) 09:00~21:00
배달안내 4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 가능
전화주문 031-682-4866
(09:00~18:00)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7(송담리 857-1)
031-681-2100

경기남부수협이 **경기수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님께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수협**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투명·소통·도약하는 경기수협
경기수산업협동조합
1825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1(수협빌딩)

조합장 정 승 만

